

지향 문맥의 논리적-의미론적 구조에 대하여¹⁾

민 찬 홍
(한남대)

일상 언어에서 외연적인 취급에 저항하는 문맥들은 크게 세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및 간접 인용 문맥, 양상 문맥, 그리고 지향적 문맥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인용 문맥과 지향 문맥을 통틀어서 흔히 내포 문맥(intensional context)라고 부른다.

이 글은 대등 접속사의 비외연적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외연적 맥락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또는 희망을 점검해 보겠다는 기획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지향 문맥을 다루되, 지향 문맥 중에서도 “S는 p를 믿는다”고 말해지는 믿음 부여 문장의 통사적-의미론적 구조에 대한 고찰만을 담고 있으며, 그나마 불완전하다.

이 글이 다루는 상당 부분은 아마도 논리학의 본령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몬태규와 프레게-취치의 두 노선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내포 논리학이 결국 내포 문맥, 특히 믿음 문맥에 대한 의미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글이 다루는 주제는 결국 좁게는 과

1) 이 글은 한남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학적 의미론을 세우려는, 그리고 넓게는 논리학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1. 범주 언어

다음 문장을 생각해 보자.

(1) 갑돌이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

는 어떠한 통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갑돌이’라는 이름을 주어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을 제외하면 (1)의 논리적 구조에 관한 논자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콰인은 (1)을 ‘갑돌이’라는 이름과 ‘---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는 술어가 결합된 문장이라고 볼 것을 제안하였다. 프레게와 포더, 데이빗슨 등등의 다른 많은 이들은 (1)이 갑돌이와 <달이 밝다는 것(that p)> 사이의 관계라고 여겼으며, 러셀은 (1)이 갑돌이와 달과 밝음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또 몬태규는 ‘믿는다’가 술어가 아니라 일종의 연산어(sentential operator)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논자들의 이러한 차이는 크레스웰²⁾의 범주 언어(categorial language)의 표기와 기법을 빌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범주 언어에서는 문장과 이름을 기본적인 통사적 범주로 본다. 문장은 범주 0에 속하며 이름은 범주 1에 속한다. 범주 언어는 이 밖의 다른 모든 표현들을 일종의 함수어(funcutor)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함수어들의 범주는 0과 1의 범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회귀적(recursively)으로 정의된다.

2) Cresswell, M. J., *Structured Meaning* (The MIT Press, 1985).

S1: 0과 1은 통사적 범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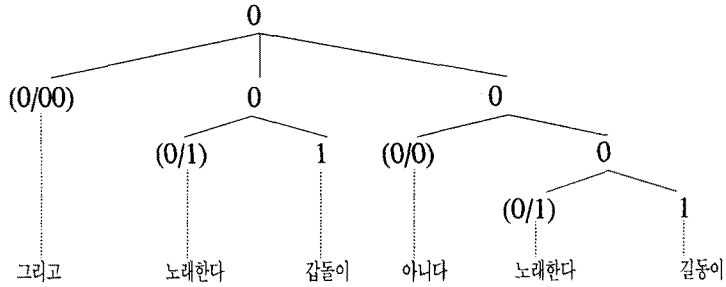
S2: 만일 τ 와 $\sigma_1, \dots, \sigma_n$ 이 통사적 범주이면 $(\tau/\sigma_1, \dots, \sigma_n)$ 도 범주이다

여기에서 $\sigma_1, \dots, \sigma_n$ 은 함수어에 입력되는 항(argument)들의 범주이고, τ 는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함수값의 범주이다. 예를 들어 문장 접속사 ‘그리고’는 두 문장을 항으로 갖고 하나의 문장을 값으로 갖는 2항 연산어이므로 그 범주는 (0/00)이 되며, 문장의 부정어 ‘아니다’는 (0/0)의 범주에 속하는 연산어이다. 또 ‘붙다’는 술어는 하나의 이름을 항으로 주면 그 값으로 한 문장이 되므로 (0/1)의 범주에 속하며, ‘...는 ---의 아버지이다’는 (0/11)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다. ‘...의 아버지’는 이름을 입력하면 다른 이름이 출력되는 함수어이므로 그 범주는 (1/1)이며, ‘천천히’ 같은 부사어는 ‘걷다’라는 술어를 제한해서 ‘천천히 걷다’라는 술어를 만들므로 ((0/1)/(0/1))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위의 (1)에서 ‘달이 밝다고’의 ‘달이 밝다는 것(that p)’은 ‘that’이라는 함수어에 문장을 입력하여 그 문장의 이름을 얻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 ‘that’은 (1/0)의 범주에 속하는 함수어³⁾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2) ‘갑돌이는 노래하고 길동이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통사적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이해된다.

(2*) <<그리고, <노래한다, 갑돌이>, <아니다,<노래한다,길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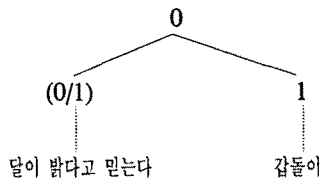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어절 분석(phrase marker)으로 표시될 수 있다 :

3) 크레스웰(*ibid.*)이 subnector라고 부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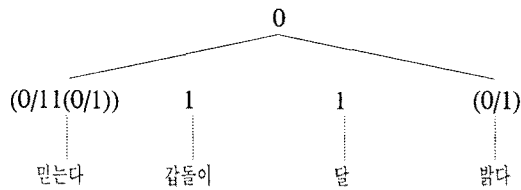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범주 언어의 장치에 의해서 위의 (1)을 분석하려 한다고 해보자. (1)에서 ‘믿는다’는 어떤 통사적 범주에 속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 **Fusion Theory** : 위의 (1)은 통사적으로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1에 속하는 ‘갑돌이’와 ‘...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는 술어가 바로 그 요소들이다. 이 술어는 물론 범주 (0/1)에 속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마치 ‘붉다’와 마찬가지로 다른 통사적 요소로 분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1)은 ‘길동이는 크다’와 통사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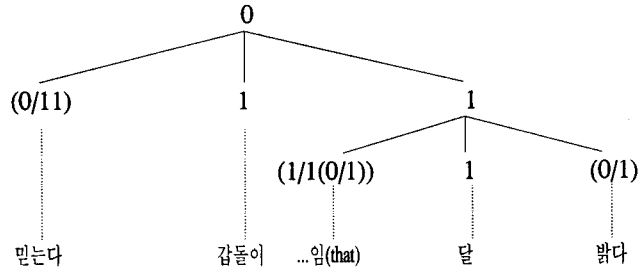


B. **Russellian Proposition** : 위의 (1)에서 ‘믿는다’는 ‘...은 ---가 ___다고 믿는다’는 3항 술어이다. 이 술어는 두 이름과 한 술어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는다’는 (0/11(0/1))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믿음의 내포 문장에 따라서 통사적으로 다른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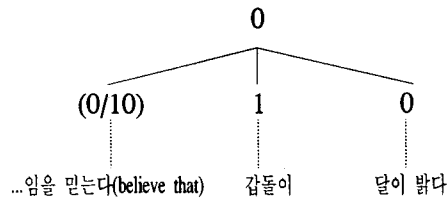
조를 가지는 셈이다. 예컨대 ‘길동이는 해가 달보다 밝다고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세 이름과 한 2항 술어를 향으로 갖는 4항 술어가 된다. 여기서 ‘밝다’는 ‘...이 ---보다 밝다’는 구조이므로 (0/11)의 범주에 속하고 따라서 이 문장에서 ‘믿는다’는 (0/111(0/11))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믿음의 내포문 자체는 믿음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적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 밝다’도 ‘달이 밝다는 것(that p)’도 믿음 문장의 요소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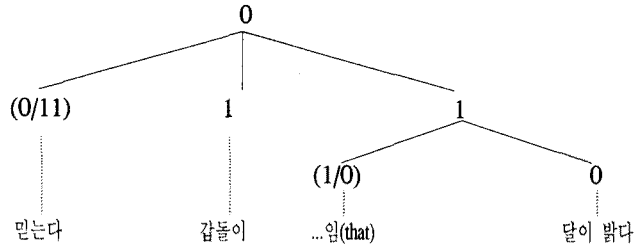
C. Subnecction Theory : ‘달이 밝다는 것’은 ‘달’과 ‘밝다’와 ‘...라는 것(that)’이라는 통사적 요소들의 결합이다. 즉 여기서 ‘...라는 것’은 (1/1(0/1))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다. 물론 내용문이 ‘해가 달보다 밝다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 ‘...라는 것’은 (1/11(0/11))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라는 것(that)’은 앞에 오는 문장에 따라서 통사적인 애매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견해와 위의 B와의 차이점은 B는 ‘달이 밝다는 것’을 믿음 문장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지만 이 견해는 이것을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또 이 견해와 C의 차이는 C에 따르면 ‘달이 밝다는 것(that p)’뿐 아니라 ‘달이 밝다(p)’도 (1)의 구성 요소인 데 반하여, 이 견해는 ‘달이 밝다(p)’는 믿음 문장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D. Operator Theory : (1)은 ‘...은 ---라고 믿는다’라는 범주 (0/10)의 연산어에 ‘갑돌이’라는 이름과 ‘달이 밝다’는 문장이 향으로 주어져서 얻어진 문장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믿는다’는 예컨대 ‘밝다’ 같은 술어라기보다는 ‘아니다’ 같은 접속사 내지 연산어(operator)와 같은 논리적 기능을 한다.



E. Content Theory : 위의 (1)은 ‘...은 ---를 믿는다’는 하나의 2항 술어에 의해서 두개의 이름(하나는 사람의 이름, 다른 하나는 문장의 이름)이 결합된 문장이다. 그러므로 (1)의 ‘믿는다’는 (0/11)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달이 밝다는 것’은 ‘달이 밝다’는 문장이 ‘...라는 것(that)’이라는 (1/0) 범주의 표현에 향으로 주어져서 얻어진 이름이다. 이 분석은 앞의 두 분석과는 달리 내용 문장이 믿음 문장의 합당한 구성 요소라고 인정한다. 즉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 부분, 즉 ‘달이 밝다는 것(that p)’은 믿음 문맥의 통사적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명제태도 문맥에 대한 설명의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론들이 이러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선은 다시 ‘that p’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믿음 문장에서 ‘that p’가 가리키는 것을 앞으로 ‘내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이 분석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 E-1. Sentential Theory : 내포문은 자연 언어의 문장이다.
- E-2. Possible-world Theory : 내포문은 가능세계의 집합을 의미한다.
- E-3. Intension Theory : 내포문은 센스 또는 내포 또는 다른 정보적 실체를 의미한다.
- E-4. Language-of-Thought Theory : 사고의 언어(language of thought)의 문장이다.
- E-5. Referential Theory : 내포문은 세계 속에 실재하는 대상들과 속성들을 의미한다.

나는 믿음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에 관한 한 이 노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내포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서 믿음 문

장을 이러한 노선에 따라서 분석해 놓는 것만으로는 믿음 문장에 대한 별 통찰을 얻어낼 수가 없다.

2. Fusion Theory

A는 콰인⁴⁾의 견해로 알려져 있다. 콰인의 내포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유명하거나와 그는 집합 추상(class abstraction)의 과학적 지위를 인정하지만, 내포 추상(intension abstraction)의 지위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믿음 문맥은 지시적으로 불투명하며 따라서 지시적으로 투명한 문맥을 이루는 집합 추상을 가지고 믿음 문장이 설명될 수 없다. 콰인은 인용 이론(quotation theory of attitude)과 셰플러의 inscription view를 간단히 논하고 물리친 후에(ibid. §44) 차라리 ‘믿는다’가 두 항을 가진 관계어가 아니라고 볼 것을 제안한다. ‘that p’를 독립된 항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콰인은 명제태도의 대상이니 내용이니 하는 불분명한 논의들을 모두 피하려고 한다. 콰인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의 동일성 조건을 주려는 시도들은 그 목표가 잘못된 설정된 것(a mistaken ideal ; ibid. 206쪽)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위의 (1)과 ‘길동이는 달이 둥글다고 믿는다’에서 공통 부분인 ‘달’은 ‘배달민족’과 ‘보름달’에서 ‘달’처럼 표기법 상의 우연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믿음 문맥의 불투명성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사실 믿음 문맥의 불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콰인의 견해에 따르면 위의 (1)과 ‘갑돌이는 <달=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라고 믿는다’라는 두 전제로부터

4) Quine, W. V. O., *Word and Object* (The MIT Press, 1960).

‘갑돌이는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 밝다고 믿는다’는 추론도 할 수 없으며, ‘갑돌이는 길동이가 진실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가 주어져도 그로부터 ‘갑돌이는 진실이가 길동이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믿는다’를 추론할 수도 없다. 심지어는 위의 (1)로부터

(3) 갑돌이가 믿는 것이 있다

는 추론도 할 수 없다. 실제로 콰인은 믿음 문맥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이란 거의 없는 셈이 된다. 콰인은 아마도 이런 추리가 사소한 것이고, 없어도 되는 종류의 추리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콰인은 그 점이 자신의 견해의 약점이라기보다는 믿음 문맥의 불명료함을 잘 보여줄 뿐이라고 여길 것이다. 특히 자신의 견해가 (1)로부터 ‘갑돌이가 믿는 것이 있다’를 추리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도 콰인은 매우 만족해 할 것이다. 양화 변항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이란 존재하는 것들이며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명제 내지 내포들이란 존재 세계의 식구가 될 자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쉬퍼⁵⁾는 이에 대하여 (3)의 양화사를 대입적으로 해석하면 (1)에서 (3)으로 가는 추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입적 양화에 있어서 (3)은 ‘갑돌이는 x를 믿는다’의 진리인 대입례가 있기만 하면 진리인데, (1)이 진리라면 그러한 대입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쉬퍼의 이러한 제안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가 말하는 대입적 해석에 따르면 ‘ $(\exists x)B(g,x)$ ’가 진리이라면 ‘ $B(g, \text{that } p)$ ’ 형식의 어떤 문장이 진리이어야 한다. 그러나

5) Schiffer, S., *Remnants of Meaning* (The MIT Press, 1987), 234-239쪽.

(3)은 갑돌이가 믿는 바를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에도 진리일 수 있을 것 같다. ‘갑돌이는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믿었다’는 문장이 진리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쉬퍼에 따르면 이런 문장은 논리적으로 거짓이다. (대입례가 있을 수 없으므로.) 대입적인 해석에서 특정한 언어의 양화 문장은 그 언어가 어떤 대입례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게 되는데, (3)의 진리값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콰인의 이러한 견해는 명제태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의 포기에 가까운 것으로서 물리쳐져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콰인에게서는 ‘달이 밝다’와 위의 (1) ‘갑돌이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 사이에 아무런 연관도 보지 못한다. 갑돌이가 <달이 밝다고> 믿는 경우와 길동이가 <달이 밝기를> 기대하는 경우에 이 믿음과 기대가 둘 다 ‘달이 밝다’는 내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사람의 기대와 믿음은 달에 대한 것이요 그것의 밝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우연으로 만드는 이론이라면 잘못되었음이 틀림없다. 포더⁶⁾가 지적하듯이 이 이론에 따르면 (1)이 참일 경우에 <갑돌이가 믿는 것이 참이면 그리고 그때에만 ‘달이 밝다’는 것은 참이라는 점>도 또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 된다.

게다가 콰인의 견해는 명제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다른 믿음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믿음을 수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대와 욕구는 세계를 지각하고 믿음을 획득함으로써 만족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며, 특히 우

6) Fodor, J., “Propositional Attitudes” in his *Representations* (The MIT Press, 1981), 47쪽.

리의 행동은 이런 여러 가지 명제태도들에 기인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들 간의 추론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따라서 콰인의 견해는 이런 점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콰인의 견해가 옳다면 ‘p라고 믿는다’는 술어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이른바 원초 술어인 셈인데, 그렇다면 ‘q라고 믿는다’, ‘r이라고 믿는다’ 등의 표현들은 모두 독립된 원초 술어가 될 것이다. 그러한 언어는 유한하게 공리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학습될 수 없을 것이다.⁷⁾(Davidson, D., [1965])

3. Russellian Proposition과 Structured Intension

B는 러셀이 한 때⁸⁾ 개진하였던 이론이다. 이 때에 러셀은 불투명성의 문제보다는 거짓인 믿음을 설명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믿음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보는 러셀에게 거짓 믿음은 골치 아픈 문젯거리가 된다. 거짓인 믿음들은 말하자면 부정적 사실(negative facts)에 대응하는 것일 터인데, 부정적 사실이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 러셀은 ‘that p’가 지시구(denoting phrase)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p가 거짓인 경우에 그것은 아무 것도 지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러셀은 믿음이란 행위자를 내용 문장을 이루는 여러 가지 항들과

7. Davidson, D., “Theories of Meaning and Learnable Languages”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8) Russell, B., “Knowledge by Acquaintance and Knowledge by Description”, in Salmon, N. and Soames, S. (ed.) *Propositions and Attitud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직접 관계 지우는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A 는 s가 F라고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A>, <s>와 <F임>이라는 세 항에 적용되는 3항 관계어가 되며, ‘A는 x가 y를 사랑한다고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A>, <x>, <y>와 <사랑함>이라는 항을 갖는 4항 관계어가 되고, ‘A는 x가 1993년에 y를 사랑하였다고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5항 관계어, ‘A는 x의 y에 대한 사랑을 z가 질투한다고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6항 관계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내용문장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믿음 문장도 무한정 다양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되며, 따라서 믿음이란 매우 통사적으로 애매한 말이 된다. 러셀은 ‘명제태도’란 말을 만들어 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셀 자신은 명제란 것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목록에 명제는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러셀은 세계를 완벽하게 기술했을 때 거짓인 명제들은 거론되지 않겠지만 거짓인 믿음은 거론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명제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제를 구성 요소로 갖는 것이 아니라 명제의 구성 요소들을 구성 요소로 갖는다”(Russell, B. [1918])고 보아야 한다. 명제의 구성 요소란 그 명제에 대응하는, 그 명제를 참이거나 거짓이게 만드는 사실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므로 갑돌이는 갑순이를 사랑한다는 명제의 구성 요소는 갑돌이와 갑순이와 이 둘을 함께 묶어주는 사랑함이라는 관계이다.

명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러셀의 견해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 않기로 한다. 러셀의 견해에 따르면 믿음 문맥은 외연이 같은 표현, 예컨대 ‘춘원’과 ‘이광수’처럼 지시 대상이 같은 두 이름의 무차별적인 대입은 허용하면서도, 내포적으로 동치인 내용문의 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춘원이 『흙』의 저

자라고 믿는다’는 문장은 ‘갑돌이는 이광수가 『흙』의 저자라고 믿는다’와 동일한 의미의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은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가질 뿐 아니라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길동이는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한다고 믿는다’에서 ‘믿는다’는 ‘길동이는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사랑 받는다고 믿는다’에서 ‘믿는다’와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한다’와 ‘사랑 받는다’는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결은 믿음 문맥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정반대 되는 것으로서 러셀 이론의 한 가지 난점이 된다. 물론 러셀 이론의 가장 큰 난점은 그의 이론이 믿음 문장의 표층 문법을 너무나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층적 구조로 보면 ‘A는 p라고 믿는다’는 표준적인 믿음 문장은 행위자와 내용 문장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여기서 내용 문장 p의 구조는 ‘믿는다’가 표현하는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믿음 문장의 이러한 표층적인 구조를 보존하는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이라하는 포더의 생각⁹⁾에 동의한다. ‘믿는다’는 말은 애매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통사적으로 애매한 구조를 가진다는 설명은 별로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C는 믿음이 사람과 구조화된 내포(structured intension)¹⁰⁾ 간의 관계라고 보는 크레스웰의 견해¹¹⁾로서 B에서 살펴 본 러셀의 견해와 프레게 이론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과 이름의 의미에 관하여 가능세계이론을 택하고 있는 크레스웰은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며, 명제란 바로 가능세계의 집합이라는 가능세계 명제

9) Fodor, J., *op. cit.*.

10) 또는 “구조화된 의미(structured meaning)”

11. Cresswell, M. J., *op. cit.*.

이론(possible-world theory of proposition)이 논리적으로 동치인 모든 문장을 동일화하게 되고, 따라서 가능세계를 통한 믿음의 분절이 믿음 문장에 대한 직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분석을 주기에는 너무 거칠다는 점에 주목한다. 크레스웰은 믿음이란 사람과 (내용문이 표현하는) 명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내용문의 부분들의 내포의 관계라고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B에서 살펴 본 러셀의 견해와 비슷한 것이다. B에 따르면 믿음이란 사람과 명제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내용문의 지시체들 간의 다항 관계이다. 따라서 B에 따르면 믿음 문장에서 'that p'는 그 구성 요소가 아니다. 'that p'는 지시어(denoting term)가 아닌 것이다. 크레스웰에 따르면 'that p'는 지시어이고 믿음 문장의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믿음 문장은 언제나 2항 관계가 된다. 그러나 크레스웰의 견해에 의하면 이 2항 관계의 관계항이 사람과 명제가 아니다. 이 관계는 사람과 구조화된 내포 간의 관계로서, 구조화된 내포란 내용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n-순서쌍이다. 예컨대 위의 (1)은 갑돌이와 구조화된 내포

(4) <^a밝다, ^b달>¹²

12) 범주 언어에서 $(\tau/\sigma_1, \dots, \sigma_n)$ 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의 의미는 각각 $\sigma_1, \dots, \sigma_n$ 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에 적용되었을 때에 범주 τ 의 의미를 값으로 주는 함수로 정의된다. 일단 가능 세계의 집합들 D_0 과 대상들 D_1 의 영역이 주어지면 모든 범주의 표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결정되는 것이다. 범주 $(\tau/\sigma_1, \dots, \sigma_n)$ 에 속하는 어떤 표현 'F'의 의미 \mathbf{F} 는 $D\sigma_1 \times \dots \times D\sigma_n$ 에서 $D\tau$ 에 가는 함수(또는 부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a달"은 (현실 세계에서는) '달'에서 달에 가는 함수가 되는 것이다.

간의 관계로서 여기서 (4)는 ‘달’과 ‘밝다’의 내포에 해당된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여기서 ‘that p’는 믿음 문장의 구성 요소이지만 ‘p’는 (독립된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 특히 (1)에서 ‘달이 밝다는 것’은 (4)의 순서쌍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5) 것(밝다, 달)

로 분석되며 여기서 ‘것(that)’은 $(1/1(0/1))$ 의 범주에 속하는 함수어이다. 나는 크레스웰의 이론을 소개하는 일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러셀의 견해(B)가 내용문에 따라서 ‘믿는다’의 통사적 범주가 달라진다고 여김으로서 믿음을 통사적으로 애매한 것으로 만들었듯이 크레스웰은 내용문에 따라서 ‘것(that)’의 통사적 범주가 달라진다고 여긴다는 점, 그러므로 믿음 문맥에서 ‘것’이 통사적으로 애매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갑돌이는 해가 달보다 밝다고 믿는다’에서 ‘것’은 $(1/(0/11)11)$ 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며, ‘갑돌이는 달이 해보다 밝지 않다고 믿는다’에서 ‘것’은 $(1/(0/0)(0/11)11)$ 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내용문에 따라서 ‘것’은 통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표현으로 취급된다. 게다가 크레스웰은 ‘갑돌이는 갑순이가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다’에서 ‘것’이 $(1/(0/0)(0/1)1)$ 의 범주로 분석될 수도 있고, $(1/(0/0)0)$ 의 범주로 분석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1/0)$ 의 범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여긴다. 크레스웰은 자신의 이러한 분석이 믿음 문장의 구조적 애매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것’이 통사적으로 애매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마치 ‘믿는다’가 통사적으로 애매한 표현으로 취급되는 것만

컴이나 건딜 수 없는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모든 말은 애매한 지도 모른다. 또 믿음 문장이 여러 가지 애매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믿음 문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 '믿는다'나 '것'이 통사적으로 애매하다는 귀결을 가진다면 그 분석은 그 이유만으로도 물리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포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프레게의 노선, 위의 C-2의 노선이 훨씬 간단하면서도 크레스웰이 걱정하였던 문제, 즉 믿음을 잘게 썰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준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크레스웰이 러셀과 프레게를 절충하려고 했던 시도는 가능 세계 의미론을 살리려는 의도, 자신이 그 동안 구축해 온 의미론을 보존하려는 의도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다.

4. 연산어 이론

'믿는다'를 술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 D는 몬태규¹³⁾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몬태규의 논증은 믿음 문맥이 아니라 양상 문맥을 주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점은 'p임은 필연이다 (that p is necessary)'라는 문장이 '...임은 필연이다'라는 연산자와 'p'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필연이다'라는 술어와 'p임'이라는 명사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콰인¹⁴⁾은 연산어로서의 필연이 쉽게 술어로 바뀔 수 있음을 보이면서 이

13) Montague, R., *Formal Philosophy* (Yale University Press, 1974).

14) Quine, W. V. O., "Three Grades of Modal Involvement" in his *The Ways of Paradox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몬테규는 필연이 문장의 술어로 취급되면 표준적인 양상 논리의 법칙들이 모순을 낳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다. 몬테규의 논증은 “인식자의 역설(Paradox of the Knower)”¹⁵⁾을 형식화함으로써 전개되고 있는데, 이 논증의 요점은 이렇다.

사형수의 역설: 판사가 죄수에게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오에 교수형 당하되 그 죄수는 한 번 이상 교수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그 죄수가 교수형이 집행되는 날 오전까지는 삼일 중 언제 교수형 당하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한다. 선고를 받은 죄수는 그가 수요일 정오에 교수형 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추리한다. 그 날은 자신에게 교수형이 집행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며, 따라서 그 날이 집행일이라면 그는 화요일 오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인데, 판사는 집행일 오전까지 정확한 집행일을 죄수가 알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일이 가능한 집행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제 화요일이 교수형이 집행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 그러나 수요일을 제외시킨 것과 똑같은 추리에 의해서 화요일도 집행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요일도 집행일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월요일도 집행일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죄수는 판사의 선고와 단서가 모두 실현될 수는 없으리라고 매우 논리적인 결론은 얻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어느 날, 예컨대 화요일 정오에 교수대에 매달리게 된다. 간단한 논리적 추리와 매우 건전한 가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판사의 선고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결론과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둘 다 얻어낼 수 있다. 몬테규는 판사의 선고

15) 또는 “사형수의 역설”, “예기치 않은 시험의 역설”.

가 자기지시적 문맥으로 재정식화되면 간단한 인식적 원칙들을 근거 삼아서 모순이 도출됨을 보인다.

요점은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것¹⁶⁾이다. 다음의 문장

(6) 이 문장(=(6))의 부정(negation)이 당신에게 알려져 있다

를 생각해 보자. 만일 (6)이 진리라면, 진리만이 알려질 수 있고 당신이 (6)의 부정을 알고 있으므로 (6)의 부정은 진리여야 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6)의 부정이 진리이다. 그러나 (6)의 부정이 진리라면, 다시 (6)에 의해서 이것은 (즉 (6)의 부정은) 당신에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6)이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6)은 어쨌든 진리이게 된다. 따라서 모순이다.

물론 알려지는 것은 진리뿐이지만 믿어지는 것은 거짓일 수도 있으므로 이 역설이 바로 믿음 문장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6)의 “당신”이 최소한의 반성 능력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된다면, “당신”이 p를 믿으면 $\neg p$ 는 믿지 않는다면 모순은 다시 등장한다. 위의 (6)을 (6*) ‘당신은 이 문장의 부정을 믿는다’로 놓고 생각해 보자. 만일 당신이 (6*)를 믿으며 또 스스로 (6*)를 믿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적어도 이 경우에 당신은 (6*)의 부정을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6*)는 거짓이다. 그런데 일단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면 당신은 (6*)의 부정을 믿어야 한다. (p가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neg p$ 가 참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6*)가 말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따라서 (6*)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6)이나 (6*)와 같은 자기지시적인

16) 거짓말쟁이 역설을 엄두에 든 것.

문장의 경우에 “당신”은 모순되는 두 명제를 둘 다 <알고> 있거나 <믿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역설을 발생시킨 가정들에 대하여 따지지는 않겠다. 오히려 이 역설이 진리와 자기지시라는 유명한 장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쟁이 역설은 자기지시 형태를 만들만큼 충분히 풍부한 언어에서 ‘진리’를 문장의 술어로 취급하고 진리에 관한 자연스러운 원칙(예컨대, 타르스키의 T-Convention)을 인정하면 언제나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 역설은 ‘앎’, ‘믿음’과 같은 말들을 포함하고, 앎과 믿음에 관한 매우 자연스러운 가정들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자기지시적 장치를 갖춘 언어에서는 언제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술어로서의 진리 개념이 역설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그리고’와 같은 연산어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연산어로서의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모순을 막기 위해서 진리를 연산어로 보는 간단한 방책을 왜 취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술어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술어가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술어, F가 주어지면 우리는 ‘F인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진술은 ‘ $(\exists x)Fx$ ’라고 1계(first-order) 논리의 장치만 가지고 간단히 표현된다. 그러나 연산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진술을 표현할 길이 없다. 어떤 말을 연산어로 취급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담고 있는 언어의 표현력은 심각하게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산어로 취급되는 양상어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언적(de dicto) 양상어와 대물적(de re) 양상어를 구별해서 전자는 순수한 연산어로 취급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통사적으로는 연

산어와 유사하면서도 의미론적으로는 술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길을 마련한다. 믿음 문장을 포함하는 인식 문맥의 경우에 이러한 제약은 치명적이다. 우리는 (1)로부터 갑돌이가 믿는 것이 있다($(\exists x)(\text{갑돌이는 } x \text{를 믿는다})$)고 추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추리의 결과는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문장이 ‘믿는다’가 ‘...임을 믿는다’라는 연산어로 취급될 때에는 1계 논리의 한계 내에서 표현될 수 없다. 연산어가 연산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문장이 될 터이고 문장의 이름이 아닌 문장 자체를 양화 변항의 값으로 취급하는 방법은 1계 논리 내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갑돌이가 믿는 것이 있다거나 갑돌이와 갑순이는 같은 것을 믿고 있다거나 그는 그가 말하는 것 전부를 믿지는 않는다거나 하는 진술들을 표현해 낼 수 없게 만드는 통사적 장치는 ‘믿는다’와 같은 명제태도 어휘들의 표현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믿음 문맥에 대한 올바른 분석일 수 없다.

5. Sentential Theory

위의 E-1, 즉 믿음 문장이 사람과 문장간의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카아납에 의해서 제시되었다.¹⁷⁾ 카아납에 따르면 믿음이란 사람과 그가 발화하려는 성향을 가진 문장¹⁸⁾ 간의 관계이다. 카아납의 이러한 제안은 아마도 믿음 문맥의 지시적 불투명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17) Carnap, R., *Meaning and Neces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13-16.

18) 정확히 말하자면 문장 유형(sentence-type).

나 카아납의 이러한 노선은 데이빗슨을 포함한 중요한 언어철학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믿음 문장에 대한 주요한 해석의 하나로 되었다. 믿음 문장이 이렇게 사람과 문장의 관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이들은 ‘명제태도’라는 용어 대신 ‘문장태도(sentential attitud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믿음을 사람과 문장(유형) 간의 관계로 해석한다는 것은 (1), ‘갑돌이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에서 ‘달이 밝다’가 사용된(used) 것이 아니라 언급된(mentioned)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여기서 ‘달이 밝다고(that p)’는 문장 유형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고(that)’는 ‘...’ 부분에 나오는 단어의 계열을 가리켜서 하나의 명사(term)로 만드는 구실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이 믿음 문장의 지시적 불투명성을 보장해 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that p’가 가리키는 것이 그냥 문장 p라면 내용문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대입은 언제나 새로운 믿음 문장을 줄 뿐이며 따라서 진리의 보존은 기대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이디푸스는 죠캐스터가 자신의 신부감이라고 믿었다”에서 “죤캐스터=오이디푸스의 어머니”로부터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어머니¹⁹⁾가 자신의 신부감이라고 믿었다”를 추리해내는 것은 마치 <‘죤캐스터는 오이디푸스의 신부감이다’라고 칠판에 쓰여 있다는 것>과 <죤캐스터=오이디푸스의 어머니>로부터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는 오이디푸스의 신부감이다’라고 칠판에 쓰여 있다>고 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카아납의 견해는 포더가 벤들러의 조건이라고 부른 것²⁰⁾, 즉 명제태도의 이론은 명제태도 동사와 ‘말하다’는 동사가

19) ‘오이디푸스’ 대신에 자기 지시어(=‘자신의’)를 대입하는 변형 규칙이 적용된 것.

보여주는 유사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킨다. 이점도 또한 분명한데 카아납의 견해에 의하면 ‘믿는다’는 어떤 사람 a 와 어떤 문장 유형 p 를 관계시키는 동사인데 ‘말하다’는 사람 a 와 문장 유형 p 의 한 토큰(token)을 관계시키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아납의 이론은 명제태도를 너무 잘게 썬다. 카아납의 이론에 따르면 믿음의 내용의 동일성 조건은 곧 믿음을 부여하는데 사용된 문장의 동일성 조건이다. 왜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잘게 구별하는가? 카아납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구별한 것은 명제태도 문맥, 특히 믿음 문맥이 지시적으로 불투명할 뿐 아니라 내포적으로도 불투명하다는 점에 주목한 때문이었다고 보여진다 (Carnap, R., *op. cit.*). 믿음 문맥은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의 대입조차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2+2=4$ 라고 믿는다”는 참이고 ‘ $2+2=4$ ’와 ‘가장 큰 숫수는 없다’는 논리적으로 동치인데, “갑돌이는 가장 큰 숫수는 없다고 믿는다”는 거짓일 수 있다. 따라서 카아납은 믿음의 내용문의 개별화는 논리적 동치성에 따른 개별화보다도 더 세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믿음이 문장에 대한 태도라고 봄으로써 이점이 쉽게 설명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잘게 썬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길동이는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한다고 믿는다’와 ‘길동이는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사랑 받는다 믿는다’는 길동이에게 같은 믿음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아납은 이 두 문장이 길동이에게 같은 믿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 Fodor, J., *op. cit.*.

두 내용문은 다른 문장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카아납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갈릴레오에게 한국어 문장으로 믿음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카아납의 이론은 지시의 불투명성을 보장하는 댓가로 믿음 문맥을 직접인용 문맥과 같은 정도로 몹시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카아납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의 문장 유형이 아니라 그 문장과 내포적 구조(intensional structure)가 같은 모든 문장의 집합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처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²¹⁾ ‘2+5’와 ‘ II sum V ’에서 ‘+’와 ‘sum’이 같은 함수이고 ‘2’와 ‘II’가 같은 것을 지시하는 지시어이고 ‘5’와 ‘V’ 역시 그렇다면 이 두 표현 ‘2+5’와 ‘ II sum V ’는 같은 내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포적 동형(intensionally isomorphic)인 것이다. 물론 내포적 동형은 통사적 변형의 경우, 예컨대 ‘ Sum(II, V) ’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두 문장이 같은 것을 지시하는 말들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두 문장은 내포적으로 동형이다. 내포적 동형의 개념은 다른 두 언어에 속하는 표현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대되면 내포적 동형은 일종의 번역 집합(translation sets)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번역 집합이란 동치 관계(equivalence relation)로서 주어진 문장에 대하여 그것의 번역이 되는 모든 문장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믿음이 문장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믿음 부여 문장에서 표현된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동치 집합 전

21) Carnap, R., *op. cit.*, 56-58쪽.

체라고 간주함으로써 믿음 문맥을 지나치게 잘게 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카아납의 이러한 대응은 태도의 내용이 문장 자체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이 문장 유형들이 아니라 그것과 내포적으로 동형인 문장들의 집합, 또는 그것의 번역 집합이라고 말함으로써 카아납은 문장의 내포적 구조와 동의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일종의 내포적 실체를 태도의 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크레스웰에 대해서 구조화된 센스를 끌어들이느니 프레게의 노선을 따르는 게 낫다고 말하였듯이 내포적 구조를 언급할 거라면 왜 그냥 프레게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 크레스웰이나 카아납 식의 이론은 프레게의 센스 이론이 갖는 모든 문젯거리를 가지며 프레게의 이론이 갖지 않는 문젯거리까지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대처 방식은 과연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만일 문장들의 번역 관계라는 것이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적 의도에 호소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도는 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문장이 어떤 번역 집합에 속하는가를 의도에 호소해서 결정하면서 동시에 의도를 포함하는 명제태도를 번역에 호소해서 결정하려는 꼴이 되겠기 때문이다.

한편 믿음 문장을 주어와 문장간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이러한 관점을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킨 데이빗슨²²⁾은 간접 인용에 대한

22) Davidson, D., "On Saying That",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분석을 통하여 믿음 문장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고 한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7)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고 말했다

는 문장은 ‘갈릴레오’라는 단칭어와 ‘말했다’는 2항 술어, 그러니까 <그 단칭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화자>와 <내용문이 지시하는 발화>를 두 항으로 갖는 2항 술어라고 분석된다. 데이빗슨의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7)에서 내용문을 언급된 것이 아니라 사용된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실제로 데이빗슨은 (7)이

(8) 갈릴레오는 그것을 말했다.

(9) 지구는 돈다.

라는 두 문장이 병렬적으로(paratactically)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7)은 더 자세하게는

(10) 갈릴레오는 한 발화를 하였는데, 그 발화로 해서 내가 <지구는 돈다>고 말할 때 갈릴레오와 나는 “같은 말하기(samesaying)” 관계에 있게 된다.

고 분석된다. (7)은 (10)이 참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만 참이다. (9)는 화자가 말한 내용을 규정해주지만 그 화자에 발화를 귀속시키는 (8)과는 아무런 논리적인 또는 의미론적인 관계도 없다. (물론 (8)에서 ‘그것’이라고 지시되었다는 점은 빼고.) 특히 (9)는 문장도 아니요 명제도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발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설명은 카아납의 이론이 당면했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데이빗슨의 설명은 내용문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므로 <p를 믿음> 과 <p가 참이라고 믿음>(전자에서는 ‘p’가 사용되고 있지만 후자에서는 언급되어 있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면제된다. 더구나 구체적 발화를 ‘말하다’의 관계항으로 설정함으로써 내포적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서 간접 인용을 설명할 수 있다.

데이빗슨의 분석에 따르면 (7)은 갈릴레오가 (8)의 ‘그것’이 가리키는 발화와 <같은 말하기> 관계를 맺을 때 참이며, 갈릴레오는 (9)의 인용자의 발화 (9)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발화를 하면 <같은 말하기> 관계를 맺게 된다. 논리적으로 볼 때 간접 인용에 있어서 내용문(=9)은 인용하는 문장(=8)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둘은 어떤 논리적인 연결도 없다. 그러므로 데이빗슨의 이론은 간접 인용에 있어서 비외연적 의미론을 끌어들이지 않고서 내용문 내에서 동일자 대입 원칙이 왜 실패하는가 설명해준다.

여기서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데이빗슨이 옳은가 하는 점을 논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데이빗슨은 간접 인용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심리적 문장 일반(명제태도에 관한 문장 등등)에 대한 분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²³⁾ 그가 인용 구문 분석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개념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서는 그의 분석은 믿음 문장에 적용될 수 없다. 첫째, 그는 ‘말하다’를 사람과 <구체적 발화> 사이의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믿는다’는 구체적 발화를 관계항으로 가질 수 없다. 믿음 문장의 분석이

23) Davidson, D. “On Saying That”,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143쪽.

<보고된> 믿음에만 국한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 발화> 대신에 <잠재적 또는 가능성적 발화>를 관계항으로 삼는 방식은 택하기 어렵다. 데이빗슨에게는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가능성적 발화란 외연주의의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 발화 대신에 발화의 종류(kinds of utterances)를 관계항으로 삼는 방식도 택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이 선결문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스티븐 쉬퍼가 지적하고 있거나와,²⁴⁾ (8)의 ‘그것’이 발화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려면 발화의 종류라는 것이 먼저 개별화(individuate)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화의 종류를 개별화하려면 발화의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화의 종류라는 개념도 보편자이고 따라서 데이빗슨의 진리조건적 의미론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다.

둘째로 ‘같은 말하기(samesaying)’ 관계란 한 문장을 말한 사람과 그 발화를 보고한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것이 그대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과 <그에게 그 믿음을 부여하는 사람> 사이에서 성립할 것 같지 않다. 이 관계를 믿음 문장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는 “부여자가 피부여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면 말했을...”이라든지 “부여자와 피부여자에게서 같은 기능적 역할을 하는...”이라는 식으로 반사실적 조건문에 호소하든지 아니면 기능주의적 시각을 벌리는 수밖에 없다.²⁵⁾²⁶⁾

24) Schiffer, S., *op. cit.*.

25) 이 점에 대해서는 스티취의 분석을 참조할 것. Stich, S., “On the Ascription of Content” in Woodfield, A. *Thought and Object : Essays on Intenti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From Folk Psychology to Cognitive Science* (The MIT Press, 1983).

26) 믿음 문장의 분석이 간접인용문의 분석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데이빗

6. Possible-World Theory

스탈네이커²⁷⁾는 내포 문장이 명제를 의미하되, 명제는 아무런 내적 구조도 갖지 않는(unstructured) 가능세계의 집합이라고 봄으로써 명제태도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한다. 명제란 가능세계로부터 진리치에로의 함수라고 정의된다(ibid., 2쪽).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내지 언어 행위와 독립적인 것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보여주는 통사적-의미론적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순의 생각은 믿음인 언어 행위와 관련지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그의 근본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의도와 믿음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독립적일 수 없다.”(“Belief and the Basis of Meaning” in his op. cit., 144쪽) ‘갑돌이가 달이 밝다고 믿는다’는 믿음 부여가 정확한 것인가 하는 점은 전적으로 갑돌이가 ‘달이 밝다’는 문장을 주장하거나 동의할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데이빗슨에 따르면 언어를 가지지 않은 것들, 예컨대 동물이 나 아기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면 어떤 문장 S에 호소해서 믿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피부여자가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그 문장을 발화하고 그 문장으로 의사 소통하고 그 문장에 동의하려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잘 못된 믿음 부여가 된다. 데이빗슨은 이런 점들에 별 의의를 두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귀결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직관에 배치될 뿐 아니라 믿음이 상식적 심리학에서 하는 역할 즉 행위를 설명할 때에 하는 역할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우리는 언어 해석에 있어서 믿음이 하는 역할로부터만 믿음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사적(私的) 태도로서의 믿음이란 언어가 제공하는 공적 역할에 부합할 때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심적) 태도들이 믿음에 의존하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피조물만이 믿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Thought and Talk” in his op. cit., 170쪽) 나는 데이빗슨의 이러한 결론이 우리가 다른 이에게 믿음을 부여할 때, 그렇게 믿음을 부여함으로써 하려고 하는 것들을 놓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믿음의 부여가 지적인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7) Stalnaker, R., *Inquiry* (The MIT Press, 1984).

표상적인 심적 상태들이란 그 상태를 가지는 유기체의 행동을 특징 지워서 설명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해서 이해된다. 합리적 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행위자가 가능한 행동의 대안들이 갖는 가능한 결과의 대안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위자는 상이한 결과들에 대해서 好惡(pro and con)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 대안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태도에 비추어서 행위자가 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도란 행위자의 행동이 가져올 가능한 결과의 대안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계의 가능한 상태의 대안들을 향해 있는 것이다. 누군가 어떤 명제가 참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 명제의 실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제란 가능한 대안들을 구별하되 행위자의 태도를 특징 지워서 표현하기에 유용한 방식으로 구별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어떤 명제를 믿는다는 것은 즉 어떤 진술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관련된 대안들을 나눌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두 명제를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는 참이 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는 가능한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림을 가지면 우리는 언어를 가지지 않은 동물들이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지향적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명제가 가능한 상황의 대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개와 그의 주인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ibid., 63쪽). 그리고 이 점은 스톨네이커의 입장을 상당히 그럴법하게 만들어준다. 지향성에 대한 언어적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빗슨이 동물들에게 믿음을 부여

하는 것이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스톨네이커는 이런 노선이 지향성을 자연화할 수 있는 유일한 유망한 그림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가능세계 존재론의 논쟁은 다루지 않겠다.²⁸⁾ 그러나 스톨네이커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점이지만²⁹⁾ 이러한 견해는 필연적으로 동치인 모든 명제를 동일시한다. 예컨대

(11) 갑순이가 자고 있거나 길동이가 자고 있다

는 명제는

(12) <갑순이도 깨어 있고 길동이기도 깨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13) 갑순이가 깨어 있다면 길동이는 자고 있다

(14) 갑순이가 자고 있거나 길동이가 자고 있으며 숫수는 무한하다.

(15) 산수의 형식체계가 결정불가능 문장을 가진다면 갑순이가 자고 있거나 길동이가 자고 있다.

.....

등의 무수히 많은 명제들과 동치인 명제들이요 따라서 스톨네이커에 의하면 동일한 명제들이다. 그렇다면 (11)을 믿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12)-(15) 등을 믿는다고 말해져야 한다. 말하자면 명제

28) 가능 세계론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입장은 Stalnaker[1984], Ch.3에 요약되어 있다.

29) 스톨네이커가 연역 문제(Deduction Problem)라고 부른 것.(*ibid.*, Ch.5) 쉬퍼(Schiffer S., *op. cit.*, 51-52쪽)도 이점을 간단히 논하면서 명제를 내적 구조가 없는 가능 세계의 집합으로 보려는 견해를 물리치고 있다.

태도는 언제나 논리적 함축에 대하여 닫혀 있어야 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어떤 타당한 논증의 전제들의 연언을 믿는다는 것은 그 논증의 전제들과 결론의 연언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그러나 논리적 함축에 대하여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이 명제 태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 아닌가?

스톨네이커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택한다. 첫째, 어떤 주어진 문장이 과연 어떤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결코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ibid.*, 84-85쪽) 어떤 명제가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필연적으로 동치인 명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문제의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명제 표현--즉 문장으로 표현된 명제--에 의해서 두개의 명제가 결정된다. 하나는 표준적인 규칙에 따라서 표현된 명제요, 다른 하나는 그 표현을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와 연결시켜 주는 명제이다. 만일 어떤 표현 s 가 표준적인 규칙에 따라서 명제 P 를 표현한다고 하자. 그러면 첫째 명제는 물론 P 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 s 는 P 를 표현한다>는 명제이다. 스톨네이커는 필연성이나 동치에 대한 무지의 경우 간과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명제라고 말한다.

두 번째 대답으로서 스톨네이커는 개개의 믿음들을 하나의 정합적인 믿음 체계로 묶는 일이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합적인 체계로 묶이지 않은 믿음들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줄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우리는 정합적 체계 없이도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정합적인 체계로 믿음들을 묶는다면 내가 믿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믿지 않은 명제들이 있다. 이것들은 순전히 연역적 탐구에 의해서 발견될 그러한 명제들일 것

이다. 연역적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개개의 믿음 상태들을 함께 묶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정말로 잘 통할지는 의심스럽다.³⁰⁾ 예를 들어서

- (16) 이발사들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한다; 그런데 이발사 길동이는 갑순이를 비난한 모든 사람을 면도하였다

는 믿지만,

- (17) 이발사들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한다; 그런데 이발사 길동이는 갑순이를 비난한 모든 사람을 면도하였다; 그리고 길동이는 갑순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17)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인가? 또 스톨네이커의 두 번째 전략이 이에 대하여 답을 주는지 살펴보자. 스톨네이커는 (16)을 믿지만 (17)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16)을 믿는 것이 아니라

- (18) 이발사들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한다
(19) 이발사 길동이는 갑순이를 비난한 모든 사람을 면도하였다

각각을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이 두 믿음을 하나로 묶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반례가 성립한다. (16)은 믿지만 (17)은 믿지 않는 사람이

30) 이하의 논의는 Richard, M., *Propositional Attitudes: An Essay on Thought and How We Ascribe Th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순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순이는

(20) 병수는 스스로 면도한다

도 믿는다. 그리고 순이는 (18)-(19)로부터 병수는 갑순이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연역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순이는 분명히 (18)과 (19)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이가 길동이는 갑순이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스톨네이커에 따르면 순이는 (17)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순이가 계속 (17)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톨네이커 자신이 들고 있는 예로서(ibid., 88쪽) 1700년도에 윌리엄 3세는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영국이 프랑스와의 핵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은 명제가 아무런 구조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려는 모든 견해들이 피할 수 없는 난점이 된다.

7. Intension Theory

이제 믿음 문장을 E의 방식으로 분석하되 이 때 내용 문장의 의미, 즉 명제를 센스 내지 내포라는 추상적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하는 견해들을 살펴보자. 먼저 프레게가 왜 문장의 내용으로서 센스를 끌어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고, 그 센스가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건 사회화된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건 프레게가 성취하려 했던 것을 이루어 줄 수 없음을 논증하겠다.

먼저 왜 프레게가 믿음 문장의 분석을 위해서 센스를 끌어들이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상식적 견해³¹⁾에 따르면 고유명사 주어를 가진 단칭문장에서 주어는 그 문장이 말하고 있는 대상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또 그것이 고유명사 주어의 역할의 전부이다. 이러한 견해를 (고유명사에 관한) 지시 의미론이라고 부르자. 지시 의미론은 문장의 내용이란 그 문장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때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주어의 역할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럴법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장의 주어가 화제(topic)를 확인(identify)하는 역할을 한다는 우리의 상식과 잘 맞아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문장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의 의미>와 그 요소의 <구성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프레게³²⁾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원칙으로서 보통 결합률(compositionality principle)이라고 불린다. 결합률에 따르면 어떤 두 문장 A와 B가 있어서 A가 'a'를 담고 있는 곳에서 B는 'b'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만 다른데 'a'와 'b'가 의미가 같다면 A와 B 역시 의미가 같아야 한다.

지시 의미론에 의하면 '몽블랑이 4000 미터보다 높다'는 문장에서 '몽블랑'은 이 문장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결정한다. 이것은 몽블랑을 지시함으로써, 또 그것을 지시함으로써만 문장의 명제적 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눈 덮인 몽블랑에 대하여 그것이 4000 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31) 러셀의 견해가 바로 이렇다.

32) Frege, G., "Sense and Reference".

있으므로 이것이 표현하는 명제는

《몽블랑, 4000 미터 이상의 높이임》

으로 표현될 수 있다.³³⁾ 또 예컨대 ‘새벽별이 빛난다’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21) 《새벽별, 빛남》

이 될 것이며 ‘초저녁별이 빛난다’가 표현하는 명제는

(22) 《초저녁별, 빛남》

이고, <새벽별=초저녁별>과 결합률에 의해서 (21)=(22)이다. 그러나 여기서 프레게가 제기한 문제가 발생한다. (21)과 (22)가 동일한 명제를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22)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21)을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두 명제가 다른 정보(=인식적 가치)를 담고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두 명제 S1과 S2가 있어서 이 두 명제의 인식적 가치가 다르다면 S1과 S2는 같은 명제가 아니다. 예컨대 새벽별과 초저녁별이 모두 같은 행성, 금성임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의 어떤 천문관찰가가 새벽의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금성을 보고 있다면 그는 (21)은 믿겠지만 (22)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S1을 믿으면서 S2는 믿지 않을 수 있다면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S1과 S2는 동일한 명제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새벽별이 빛난다’와 ‘초저녁별이

33) 이것이 바로 러셀적 명제이다.

빛난다'는 같은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프레게는 '센스'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³⁴⁾ 프레게에 따르면 의미 있는 표현들은 그것이 문장 이하의 구절이건 완전한 문장이건 간에 그 지시체가 되는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표현이 지시체를 가리키는 것은 언제나 그 센스를 표현함으로 해서이다. 어떤 표현의 센스란 지시체를 결정해주는 개념적 표상이요 지시체의 표상 방식(a mode of presentation)이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센스는 소크라테스라는 대상의 표상 방식이며 그 이름은 소크라테스가 그 이름이 표현하는 개념적 표상에 들어맞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지시한다. 표현의 센스가 그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 그리고 표현의 센스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론적 내용이 된다. 어떤 표현이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인식적 가치 내지 정보적 내용이 바로 센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체로 그 말이 표현하고 있는 센스를 파악하는 일이 된다. 또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갖는 태도들, 예컨대 놀란다든가 당연시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태도들과 문장이 갖는

34) 더밋은 프레게가 양상문맥이나 믿음문맥 같은 지시적으로 불투명한 문맥들 때문에 센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해석은 프레게의 센스이론에 대한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Dummett, M.,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Ch.5) 센스에 대한 요청이 지시적으로 불투명한 문맥에 대한 대처가 아니었다는 더밋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은 없다. 프레게가 의미론의 과제를 더밋의 해석대로 의미 이해의 문제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프레게의 센스 개념이 언어적 지식의 문제 내지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센스의 도입이 문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적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더밋은 센스가 왜 필요한가를 보이는 프레게의 고전적 논증에서 등장하는 '인식적 가치'란 개념이 믿음 문맥이 제기하는 문제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장의 인식적 가치와 문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적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라고 보인다.

인식론적 속성들, 그러니까 분석적이라든지 선험적이라든지 등등의 속성들은 센스에 호소함으로써 설명된다. 문장에 대한 우리의 태도란 것은 결국 그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센스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센스가 바로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태도들의 대상인 것이다.

프레게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사고라고 불렀다. 프레게는 ‘몽블랑은 4000 미터가 넘는다’는 문장의 센스는 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즉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에는 몽블랑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몽블랑의 표상방식이 포함되리라고 여겼다. ‘새벽별이 빛난다’와 ‘초저녁별이 빛난다’는 둘 다 금성에 대하여 그것이 빛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것들의 센스, 즉 이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는 다르다. 프레게에 따르면 <새벽별이 빛난다>는 사고(명제)는 새벽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벽별 자체를 구성 요소로 갖지는 않는다. 대상을 생각하는 방식,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 또는 대상이 드러나는 방식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들 각각이 다른 사고(명제)를 만든다. 어떤 사고(명제)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은 그것이 그 대상을 결정하는 센스를 포함하기 때문이지 대상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센스는 어떻게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적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프레게가 요구하는 센스의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되짚어 보자. 먼저 센스란 언어 사용자가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어떤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센스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에 속하는 표현들의 센스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 둘째로 프레게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니와 어떤 표현의

센스란 그 표현과 연관되는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이나 심상이 아니다. 센스는 공적이며 객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센스는 공유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무엇이다. 셋째로 표현의 센스가 그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 어떤 표현의 센스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그 표현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을 확인(동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언어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라는 점이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지적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프레게에 따르면 센스란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해 주기에 충분한 정보인 셈인데 그러한 센스의 파악은 대상의 지시에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센스의 파악이 성공적인 지시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퍼트남의 “언어적 노동의 분업” 논증에 의해서 보일 수 있다.³⁵⁾ 언어적 노동의 분업이라는 생각은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당한 성원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제대로 가진 사용자들(competent speakers)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이해하고 구사하는 모든 표현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지시체를 분간해낼 만큼의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어떤 말들은 언어적 노동 분업을 담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의자’의 경우가 그렇다. 어떤 말이 언어적 노동 분업을 담고 있을 때에는 평균적인 화자들은 그 말의 외연을 결정할 수 없을 수 있다. 언어 사용자 개인은 그 말의 외연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35) 센스의 이러한 성격은 더밋(Dummett, M. [1973])에 의해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36) Putnam, H., “The Meaning of ‘meaning’”, in his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말들을 사용하지만 바로 그 점으로 해서 그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이라는 말의 지시 대상을 분간해 낼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들이 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그들이 지시하는 것은 금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서 금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 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퍼트남의 논점과는 다른 각도에서 더밋(*op. cit.*)도 센스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지시에 성공하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이 ‘물리학은 내 아들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물리학을 지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어 사용자가 공유함직한 ‘물리학’의 센스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센스의 파악은 성공적인 지시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혹자는 이러한 논증이 물리학자의 어머니의 경우 그는 ‘물리학’이란 말에 관한 한 정당한 언어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될 수 있으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물리학’의 센스가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물리학’의 지시 대상을 지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물리학’의 센스를 파악함으로써 지시하는 정상적인 또는 표준적인 경우들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지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한 언어 공동체의 대부분의 성원이 정당한 언어 사용자가 아니라는 귀결에 이르게 한다. 만일 이러한 반론이 옳다면 한 언어의 모든 말에 대하여 그 지시체를 가려낼 수 있는 완벽한, 이상적인 언어 사용자만이 정당한 언어 사용자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 사용자란 있을 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언어 사용자들은 이상적인 언어 사용자에 비추어 불

때 매우 불완전한 언어 사용자인 셈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체로 지시에 성공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퍼트남의 언어적 노동의 분업이라는 생각이 이것을 설명해 준다. 요점은 이렇다. 프레게가 의도한 바 지시체를 결정해주기에 충분한 센스란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의 물리학자의 어머니의 경우 그가 ‘물리학’이란 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지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봄으로써 프레게적 견해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써얼³⁷⁾은 전통적 견해를 가진 의미론자들이 언어적 노동의 분업 논증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는 논제는 의미를 불완전하게 알거나 아예 모르는 화자를 고려하는 논증에 의해서 논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써얼에 따르면 내포는 개개 화자들에 대하여 상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프레게적 센스는 오히려 개개 화자들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추상적 대상이다. 따라서 어떤 화자가 자기가 쓰는 말의 내포를 불완전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는 것을 논파하는 게 아니라 그 화자가 외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써얼에 따르면 언어적 노동의 분업 논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상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모든 화자들의 지향적 상태 전체가 외연을 정확히 가려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써얼의 프레게 해석은 프레게의 센스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해

37) Searle, J., *Inten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Ch.6.

석에 속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프레게 스스로 센스란 개인적인 것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센스란 개개의 화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건 알지 못하건 간에 그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해 주기에 필요 충분한 정보요 추상적 대상이다. 그러나 프레게의 센스가 이렇게 추상적 대상으로 해석될 때 프레게의 센스 이론이란 이상적으로 완벽한 언어 사용자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프레게는 현실적으로 언어가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경우에 완벽한 화자에 있어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일단 이상적인 경우에 언어의 작동을 설명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화자들의 언어 능력은 그에 비추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언어 사용자에 대한 이론이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론을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나는 센스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상적인 화자의 경우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프레게의 센스 이론은 프레게가 센스 이론을 제시하게 된 문제, 즉 믿음 문맥에서 동일자 대입불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센스가 지시체를 결정해 주기에 충분한 정보인데 어떤 화자, 예컨대 갑돌이가 그 센스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돌이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달=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므로 갑돌이는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 밝다고 믿어야 한다. 갑돌이가 이상적인 화자라면 그는 물론 ‘달’의 센스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요, 또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의 센스 또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두 표현의 완

벽한 센스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은 두 표현의 지시체를 정확히 동일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화자로서의 갑들이에 대하여 믿음 문맥에서의 동일자 대입불가능이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표현의 지시체 이외에 센스를 끌어들이 이유가 없었지 않은가? 이상적인 화자에 의해서 파악되는 공적인 추상적 실체로서의 센스를 상정하는 이론은 믿음 문맥의 동일자 대입 불가능 논제와 상충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센스 이론은 언어 사용자들이 문장에 대해서 갖는 다양한 인식적 태도를, 문장들의 인식적 가치의 차이를 설명해 낼 수 없다.

나는 센스를 말할 때 프레게의 정신으로 미루어 센스에서 지시체를 결정하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성격을 빼버리면 그러한 센스 이론은 더 이상 프레게의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시체를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센스를 상정하는 것은 믿음 문맥의 지시적 불투명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투명함을 보여준다. 센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게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게의 센스가 살아남으려면 그것은 개개인 화자에 대하여 상대화되어야 한다. 각각의 언어 사용자에 대하여 상대화되었을 때 프레게의 센스는 믿음 문맥이 왜 지시적으로 불투명한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이 갖는 문장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렇게 현실적인 언어 사용자 개개인에 대하여 상대화된 센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퍼트남에 의해서 제시된 또 다른 논증, 센스의 파악이 지시체를 동일화하는 충분조건일 수도 없다는 논증을 검토하기로 한다.

퍼트남(*op. cit.*)은 유명한 <쌍둥이 지구>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언어 사용자에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센스가 성공적인 지시를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퍼트남은 프레게의 이론을 포함하는 전통적 의미론이 의미의 두 요소를 내포와 외연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어떤 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³⁸⁾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겼다고 본다. 먼저 ‘심장을 가진 생물’과 ‘콩팥을 가진 생물’의 예가 보여주듯이 외연은 같지만 내포는 다른 말들이 있다. ‘의미’라는 말에 외연으로서의 의미라는 요소가 들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외연이 아닌 의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요소를 흔히들 ‘개념’ 혹은 ‘내포’라고 불렀다. 위의 두 표현이 의미가 다르다고 말할 때 의미는 내포에 해당한다. 이런 구분은 전통적 철학자들로 하여금 의미가 정신적인 것이라고 여기게 하였다. 물론 프레게는 의미가 공적인 속성이라 봄으로써 개념을 심리적인 것이 아닌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심적 행위 내지 상태일 수밖에 없다. 프레게도 어떤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심적 상태에 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의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어떤 말에 대응하는 개념이란 어떤 징표들의 결합이라는 고대 이래의 사고 방식(물론 프레게가 여기에 포함된다)은 어떤 대상이 어떤 말의 외연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를 결정해주는 필요 충분 조건, 즉 외연이 적용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

38) 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심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심적 상태가 같다면 그들이 소유한 정보도 같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심적 상태가 외연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보 소유가 외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전통적 의미론자들은 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을 그 말의 개념, 즉 내포를 안다는 것과 동일시했으며 이때 내포는 그 말이 어떤 대상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퍼트남은 전통적 의미론의 주장을 ① 어떤 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어떤 심적 상태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② 어떤 말의 내포는 그 외연을 결정한다는 두 개의 주장으로 요약한다(ibid., 217-219쪽).

심적 상태가 외연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퍼트남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쌍둥이 지구의 XYZ이다(ibid., 223-225쪽). 만일 누군가가 물과 모든 점에서 똑같은 성질을 가진 액체를 발견했다고 하자. 놀랍게도 그 액체의 분자 구조는 물과 아주 달라서 매우 복잡한 화학식으로 표현된다고 하자. 그 복잡한 화학식을 줄여서 'XYZ'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경우에 XYZ는 물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XYZ는 물과 매우 비슷하지만 물은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 퍼트남의 생각이다. '물'은 자연종명사로서 크립키가 말한 고정 지시어인 것이다. 물론 'H₂O'도 어떤 분자를 나타내는 고정 지시어이다. 그런데 XYZ가 발견된 고립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와 완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 액체를 '물'이라고 부른다고 해보자. (이 지역이 지구가 아닌 어떤 행성, 쌍둥이 지구라고 하면 퍼트남의 얘기 그 대로이다.) 이 때에 그들에게 '물'은 XYZ를 의미한다. 반면에 우리에게 '물'은 H₂O를 의미한다. 시절이 물의 분자 구조가 밝혀지기 전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갖는 심적 상태는 우리가 사는 곳의 당시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갖는 심적 상태와 같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느냐 하는 것은 그 표현을 사

용하는 개개인의 심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노동분업과 환경적 요인³⁹⁾에 의해서 결정된다. 퍼트남에 따르면 전통적 의미론의 잘못은 무엇보다도 ‘레몬’, ‘호랑이’, ‘금’, ‘물’ 등의 말들의 의미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얻는 여러 가지 성질들의 연언이라고 보려는 데 있다. 그러나 노랑고, 둥글고, 새콤하고 등등의 어떤 성질도, 게다가 그것들 전체도 레몬의 외연을 결정해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성질들의 연언을 가지고 정의하려면 그 정의는 “보통의(normal) 레몬은” 하는 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성질들의 연언을 가지고 정의하려 할 때 보통의, 표준적인 성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종 명사의 특징이라고 퍼트남은 지적한다. 문제는 표준적인 성원들조차도 그것들에 특징적으로 부여된 성질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예컨대 모든 정상적인 레몬이 실제로 붉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 동안 모든 인간들은 교묘한 안질을 앓고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레몬은 정상적인 것들의 경우라고 해도 그것에 부여되어 있는 성질들을 분석적으로도 필연적으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⁴⁰⁾ 개인의 심적 상태가 그 말의 외연을 결정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 말의 외연을 결정하는 것은 그 화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 전체의 사회 언어적 상태(sociolinguistic state)라고 할 수 있다(ibid. 227-229쪽).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의 예, ‘H₂O’와 ‘XYZ’의 예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물’의 외연이

39) 이것이 퍼트남이 크립키의 ‘고정성’(rigidity)을 지표성(indexicality)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40) Putnam이 레몬의 normal member가 갖는 특징들이 ‘레몬’의 의미와 전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특징들은 ‘레몬’의 stereotype을 이루며 stereotype은 의미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가능세계에 대해서 상대적이면서(world-relative) 의미에 있어서는 불변적이라는 노선을 택할 수 있겠다. 이런 노선에 따르면 ‘물’은 지구와 쌍둥이 지구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지 지구에서 ‘물’은 H_2O 이고, 쌍둥이 지구에서는 XYZ일 뿐이다. 둘째, 물은 어떤 가능세계에서나 H_2O 이지만 지구와 쌍둥이 지구에서 ‘물’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퍼트남은 쌍둥이 지구 예가 옳다면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이것은 물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말하자면 대물적 ‘이것’이다. ‘물’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동치 관계(equivalence relation)를 갖는 것이다. 퍼트남의 말대로 이점은 ‘나’라는 말의 용법과 닮은 데가 있다. ‘now’, ‘this’, ‘here’ 등의 말과 함께 ‘나’는 지표어(indexical)라고 불린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적 의미론자들도 ‘내포가 외연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퍼트남에 따르면 이런 분명한 지표어들 이외에도 많은 말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이란 말도 그렇다.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논증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으로서 써얼(Searle, J., op. cit., Ch.6)이 전통적 의미론의 입장에서 퍼트남의 논증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론을 생각해 보자. 써얼은 먼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더라면 ‘물’은 ‘옥’과 마찬가지로 경로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한다.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옥이 있다고 말해지듯이 화학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물이 있다고 말해지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또 설사 퍼트남의 직관이 옳다고 하더라도 퍼트남은 “머릿속에 있는 의미”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지향적 내용을 지표적인 내용으로 대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물이란 액체이며 무색, 무미의

물질이고, 등등 몇 가지 특징들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서 퍼트남은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물질과 같은 물리 화학적 구조(그 구조가 무엇이든 간에)를 가지는 물질이라고 지표적으로 정의한다.

썬얼은 이러한 지표적 정의 또한 외연을 결정하는 내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표어의 역할⁴¹⁾을 센스와 동일시하려는 썬얼의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이 점에 관한 한 페리의 논증⁴²⁾이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페리의 논증은 퍼트남의 논증과는 별개로 표현의 지시체가 센스 내지 내포를 매개로 해서 지시한다는 프레게적 노선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반론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두 문장을 생각해 보자.

- (23) 넴차로프가 망명했을 때 러시아와 캐나다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 (24) 오늘 러시아와 캐나다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23)과 (24) 모두에서 ‘러시아와 캐나다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문장은 불완전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⁴³⁾ 만일 (24)가 (1977년) 8월 1일에 발화되었다면 (24)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8월 2

41) role, 페리(Perry, J.[1977])의 용어, 카플란(Kaplan, D.[1989])의 “character”도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 또 Perry, J.[1979] 참조.

42) Perry, J., “Frege on Demonstrative”.

43) 이 문장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at some time or other) 러시아와 캐나다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문장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 시점을 규정해주는 sense completer가 없으면 불완전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 문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페리(ibid.) 참조.

일에 발화되었다면 (24)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3)의 경우에는 발화의 시점이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24)의 ‘오늘’이 8월 1일과 8월 2일에 같은 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24) 전체는 두 경우에 같은 센스(=사고)를 가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24)는 불완전한 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센스가 완전하다면 두 발화의 경우에 진리치가 다를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경우의 발화에서 ‘오늘’이 완전한 센스를 제공한다면 ‘오늘’이라는 말의 센스는 자정을 기해서 바뀔 꼴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발화 상황으로부터 특정한 대상을 가려주는 규칙이다. 페리는 이러한 규칙을 <지표어의 역할(role)>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이라는 것을 프레게의 센스로 귀착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센스는 상황으로부터 지시체로 가는 함수가 아니다. 센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지시체를 가려내 준다. 그런데도 프레게는 발화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24)와 같은 문장으로부터 하나의 사고를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겼다.⁴⁴⁾ 그러나 ‘오늘’이라는 말이 갖는 불변의 역할에서도, 또 그 말이 각각의 발화 상황에서 가리키는 지시체들로부터도 센스를 얻어낼 수는 없다. 센스는 지시체를 결정하지만 지시체로부터 센스로 가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에서 지표어가 어떻게 지시하게 되는가에 대한 논의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적으로도 지표어의 작동 방식이 프레게의 센스 이론에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44) 페리는 프레게가 지표어 내지 지시어(demonstratives)의 <역할>같은 개념을 깨닫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페리(*ibid.*) 참조.

충분히 밝혀졌으리라고 믿는다. 지표어의 작동방식을 ‘역할’이라고 부르건 ‘character’⁴⁵⁾라고 부르건 그것은 프레게의 센스는 아니며 전통적 의미론에서의 내포도 아니다. 그렇다면 퍼트남이 자연종 단어들이 지표성을 갖는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성에 호소하는 지시도 내포에 의한 지시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개인적이고 비심리적인 추상적 실체(entity)로서 한편으로는 언어 사용자 개개인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파악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센스가 이해되는 한 그러한 센스는 현실적인 언어 사용자의 언어능력을 설명할 수 없으며, 또 믿음 문맥을 완벽하게 투명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이 문장에 대해서 갖는 인식적 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논증하였고 또 센스의 파악이라는 것이 지시체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다. 프레게의 이론이 갖는 매력은 무엇보다도 문장들에 대하여 언어 사용자들이 갖는 다양한 태도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약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센스를 개인들로부터 추상해서 공적인 실체로 상정하고서는 그러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프레게의 정신에는 어긋나지만 센스를 개인적인 것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프레게 이론의 이러한 약속을 실현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러한 방향의 모색에 대하여 살펴 볼 차례가 되었다. 어쨌거나 대상들이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센스란 바로 이러한 대상들의 표상 방식을 가리

45) Kaplan, M., "Demonstratives", in Almog, J., *Themes from Kapla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킨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접근은 프레게로 하여금 센스 이론을 개선케 했던 문제, 즉 믿음 문맥에서의 동일자 대입 불가능성을 잘 설명해 줄 것 같다. 갑돌이는 달이 밝다고 믿고 달은 바로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지만 갑돌이는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 밝다고 믿지는 않는다. 갑돌이의 믿음은 <달>에 대한 갑돌이의 표상 방식과 <밝음>에 대한 갑돌이의 표상 방식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달은 갑돌이에게는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라는 방식으로 표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 문맥에서 동일자 대입 불가능은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해석은 퍼트남 류의 논증과도 양립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언어 사용자 개개인이 한 언어적 표현에 대하여 다른 센스를 관련시킬 수 있으며⁴⁶⁾ 또 그들이 관련시키고 있는 센스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지시체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센스는 분명히 퍼트남의 언어적 노동의 분업 논제와 양립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는 센스만을 관련시킬 수 있다. 심지어 센스가 반드시 기술어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데 요구되는 심상이나 어떤 다른 능력까지도 센스에 포함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된 센스는 태도 부여 문맥의 의미론을 좀 더 그럴법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같은 표현에 대하여 사람들이 흔히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센스가 개인화되는 순간 (1)에

46) 프레게는 비록 일상언어의 애매성 탓으로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언어적 표현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다른 센스를 관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Frege, G. [1879]의 아리스토텔레스 예가 그것을 보여준다.

서 갑돌이와 관계된 사고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난관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1)은 ‘달이 밝다’는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센스, 즉 사고를 갑돌이와 <믿는다>는 관계어로 연결시킨 문장이다. 그런데 그 센스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 이때 갑돌이와 관계 지워진 사고는 무엇인가? 갑돌이가 그것에 대해서 가진 사고인가? 아니면 갑돌이에게 그 믿음을 부여한 사람, 즉 (1)을 말한 사람이 ‘달이 밝다’에 대해서 가지는 사고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인가?

언어 사용자 개인에 대하여 상대화된 센스를 함수 f 의 값으로 나타내기로 하자. 문장이건 단어건 구절이건 모든 표현은 개개인으로부터 그가 그 표현에 대하여 갖는 센스로 가는 함수 f 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달’에 대하여 말하자면 <‘달’(갑돌이)>는 ‘달’이 갑돌이에 대하여 갖는 센스이다. 그러면 앞 절의 (1)에서 갑돌이가 고려시대의 인물이라고 하자. 그러면 ‘갑돌이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는 믿음 부여 문장과 예컨대 어떤 천문학자 김 박사에 대하여 ‘김 박사는 달이 밝다고 믿는다’고 믿음을 부여한 문장은 갑돌이와 김 박사에겐 같은 믿음을 부여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 것이다. f ‘달’(갑돌이) \neq f ‘달’(김 박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갑돌이와 김 박사 각각에 대하여 ‘달’이 어떤 센스를 가지던 간에 두 사람이 달이 밝다고 믿을 때 두 사람이 밝다고 믿은 것은 f ‘달’(x)가 아니라 달이다. 두 사람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두 사람의 믿음은 둘 다 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는 이 점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믿음 문장에 대한 의미론은 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프레계가 각각의 표현에 센스를 관련시키면서 그

센스를 통하여 표현의 지시체가 결정된다고 말하였으므로 프레게는 표현의 지시체를 의미의 일부로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프레게가 이점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갑돌이와 김 박사에게 대하여 ‘달’이 갖는 센스는 다르지만 그 지시체는 같을 터이므로 프레게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두 사람이 달이 밝다고 믿을 때 두 사람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프레게가 믿음 문장에서 내용문의 지시체는 외연적 문맥에서 그 내용문의 센스라고 천명했던 점, 즉 프레게의 간접 지시론을 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센스가 개인적인 것이고 믿음 문장의 내용문의 지시체는 그 내용문의 일반적 센스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같은 내용문으로 표현된 사고라고 해도 모든 사고는 실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프레게의 생각 중에서 간접 지시론만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이미 센스를 개인화하였을 때 우리는 프레게의 진의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간 셈이다. 그러니 그의 간접 지시론을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믿음 문장에서 내용문(과 그 구성 요소들)도 일상적 맥락에서와 같은 센스,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믿음 문장의 내용문과 그 부분들이 일상적 지시체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E-5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믿음 문맥에 있어서도 지시적 의미론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센스라는 의미의 요소를 부정한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외연적 문맥이고 믿음 문맥이고 간에 표현의 의미 내지 내용은 언제나 그 지시체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물론 프레게가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 이것은 전형적인 반프레게적 이론이다. 둘째로 믿음 문장을 넓게, 즉 대물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센스라는 의미의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용문의 지시체가 외연적 문맥의 지시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⁷⁾

(25) 대언적 해석: 갑돌이는 믿는다: $(\exists x)(x=a) \ \& \ Bx$

(26) 대물적 해석: $(\exists x)((x=a) \ \& \ \text{갑돌이는 믿는다: } Bx)$

그런데 만일 앞 절의 (1)이 (26)과 같이 해석된다면 우리는 (1)과 <a=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라는 전제로부터 <갑돌이는 지구의 하나뿐인 자연 위성이 밝다고 믿는다>를 얻어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물적 태도의 부여에 있어서 고유 명사 ‘달’은 ‘...가 ---라고 믿는다’는 표현이 만드는 불투명한 맥락 밖에 있으며 따라서 동일자 대입률과 존재 일반화 등의 추론이 성립하게 된다. ‘달’은 전적으로 지시적인 위치(*purely referential position*)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 역시 프레게의 기본 노선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는다. 내용문이 지시적으로 투명해지면 문장들이 갖는 인식적 가치는 언제나 같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문장에 대하여 갖는 인식적 태도의 차이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47) ‘달’은 고유명사로 처리되어 a로 표기되었고, ‘밝다’는 술어는 B로 표기되었다.

참고문헌

- Carnap, R., *Meaning and Neces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 Cresswell, M. J., *Structured Meaning*, The MIT Press, 1985.
- Davidson, D., "Theories of Meaning and Learnable Languages"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Davidson, D., "On Saying That"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Fodor, J., "Propositional Attitudes" in his *Representations* (The MIT Press, 1981).
- Frege, G., "*Sense and Reference*".
- Kaplan, M., "Demonstratives" in Almog, J., *Themes from Kapla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Montague, R., *Formal Philosophy*, Yale University Press, 1974.
- Perry, J., "Frege on Demonstrative".
- Putnam, H., "The Meaning of 'meaning'" in his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Quine, W. V. O., *Word and Object*, The MIT Press, 1960.
- _____, "Three Grades of Modal Involvement" in his *The Ways of Paradox and Other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Richard, M., *Propositional Attitudes: An Essay on Thought and How We Ascribe Th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Russell, B., "Knowledge by Acquaintance and Knowledge by Description" in Salmon, N. and Soames, S. (ed.)

Propositions and Attitud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Schiffer, S., *Remnants of Meaning*, The MIT Press, 1987.

Searle, J., *Inten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Stalnaker, R., *Inquiry*, The MIT Press, 1984.

Stich, S., "On the Ascription of Content" in Woodfield, A. *Thought and Object : Essays on Intenti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